

MC : FM 90.7MHz 경인방송의 아침시사정보프로그램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수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회 허인환 의원과 함께 인천시의 도시재정비사업 진행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허인환 의원은 동구 제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MC : 어이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원 : 예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MC : 잘 지내셨지요?

의원 : 예 예

MC :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보니까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조례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정이 됐는데... 그 주요 골자가 지금 동인천지구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민영개발방식이죠? 주택재개발 등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 이게 주요 골가지요?

의원 : 예

MC :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원 : 동인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약 300,000㎡ 정도로요, 현재 인천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개발하기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세분화해서 순차적으로 순환개발을 하고자 6개 구역으로 세분화를 했고요. 주민이 각 구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앞으로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동인천재생사업에만 적용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MC : 아, 그렇군요. 구역별로 나눠서 순환개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의원 : 예, 예.

MC : 그러면은 이거는 주민들 별 반대가 없습니까?

의원 : 각 구역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역별 개발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MC : 네 한꺼번에 개발 안 하고 순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좋아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MC :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좀 오래 끌은 내용들이잖아요?

의원 : 예, 예

MC :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6개 구역이 모두 다 완료가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의원 : 일부는 민영개발이나 민간개발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또 공영개발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영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시 재정 여건상 어떤 그런 현황을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동인천지구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그동안에 무역항으로 지정이 되 있어 가지고 수산물 판매가 중단됐던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 사실은 여기가 인천의 중심지였잖아요?

의원 : 예, 예 그렇습니다.

MC : 수산물판매가 그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오는 6월에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들어서게 되

지요?

의원 : 예 오는 6월이 아니고 5월경 정도에 완공이 예정이구요.

MC : 아, 5월부터

의원 : 예. 기존에 어항의 개발은 그 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존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구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자연적인 환경을 보존하면서 기존의 어떤 항수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개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MC : 음,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산물 직매장하고 물류 유통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 찾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거죠?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예, 대형 어시장은 아닌거죠?

의원 : 예, 저기 생활형 어시장으로다가.

MC : 생활형 어시장. 예, 우리가 그 어시장 그러면 연안부두라든가 소래포구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시민들이 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또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수산물 직매장이 마련된다는 거, 올 5월부터란 말이죠?

의원 : 예

MC : 그리고 지금 동인천역에서 내려서서 화수부두까지 가시려면 걸어서 가기가 사실은 그거 좀 길도 좀 외지고 말예요. 좀 한산하고 그런데, 요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 : 지금 현재 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으로다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MC : 그러게 말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의원 : 동인천역에서 화수부두까지 길을 좀 정비를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를 좀 하고요, 화수부두 안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좀 확대를 하고 이런 계획이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조만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C : 진입도로도 확대하고 주차장도 늘리고. 요게 5월에 들어서게 되면 그 전까지는 되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의원 : 어... 5월 이후에 좀 약간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상 그 이후에 될 것 같고요.

MC :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도요. 동인천역에서 화수부두, 걸어서 사실 갈 정도 거리잖아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예. 그거 좀 주변 좀 잘 정비해서 산책로 말씀 하셨으니까 동구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대건고등학교 있지요?

의원 : 예, 예

MC : 옛날, 지금 학교를 옮겼습니다만, 그 자리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공사 작년에 첫삽을 뚫는데 그 사업이 한 때 뭐 중단되고 그랬었다면서요?

의원 : 예, 지금 인천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MC : 그게 돈이 없어서 저기 한거군요, 예.

의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우리 도시 인천도시공사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대건학교 주변 그 부분이 인천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시개

발사업으로 첫 사업으로다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깊습니다.

MC : 예, 예 이거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의원 : 이 부분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MC : 이거는 입주하시는 분들... 자격이 따로 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의원 : 예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셨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MC : 예, 사실은 원주민들이 입주율이 낮은 것이 재개발의 문제점이었는데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니겠습니까?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원주민들 좀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일제강점기 때는 그 부두 노동자들의 집단수용소였고 6.25전쟁 이후에는 피난민들의 정착촌이었던 만석동의 판자촌 있지요. 아카사키촌이라고 이른바 불리기도 하는데 아카사키촌이 원주민과 마을 함께 살리는 공동체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의원 : 예, 지금 만석동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방촌에 기존 마을을 지키면서 원주민의 안정된 주거 정착을 위해서 임대주택건설을 하는 건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혼합형 정비사업형태로다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주거 정착을 위해서 보금자리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MC :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의원 : 예, 틀립니다. 여기는 지금 100%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MC :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재정착할 때 뭐 돈을 좀 더 내시라든가 하면 이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원 : 기존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내고,

MC :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 : 크게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만석동 같은 경우는 3평, 5평, 7평 이정도 규모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1:1 방식으로.

MC : 국비도 좀 확보가 되고 그랬죠?

의원 :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까지 다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MC : 이거 언제 된다고요?

의원 : 이게 지금 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요, 올해 9월달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엔 입주가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인천 최초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MC : 예, 우리 주변에 정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좀 사시는 집이라도 좀 제대로 된 데 살 수 있도록 정말이지 많은 관심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카사키촌을 말

썸 드리고 있는데 공동작업장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건가요?

의원 : 예, 주민 자활 사업을 돕고자 공동작업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요.

MC :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 아카사키촌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통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국비하고 시비로다가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MC : 예.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 뭐 계획 단계이긴 하겠습니까만?

의원 : 지금 현재 아카사키촌에서 공동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이 연필심, 샤프심 같은 거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MC : 네, 실질적인 삶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요거 건설 일부 구간은 착공을 했구요. 인천시 구간은 아 닙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동구의회가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동구 지하 관통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최근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 예

MC : 여기에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먼저,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의원 : 예,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김포까지 약 한 28.5km를 건설하는 사업이구요,

MC : 우리 구간은 그렇지요.

의원 :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에서 지하로다가 터널을 뚫는 부분이 우리 동구 부분은 한 5.6 km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MC : 어디서 어디인가요?

의원 : 예 신흥동 있는데서부터

MC : 예, 신흥동.

의원 : 예 거기서부터 해서 동구 중심을 관통해서 현대제철 쪽으로 다 빠져 나가는 겁니다.

MC : 현대제철 쪽으로... 음... 그렇군요. 자.. 요게 요렇게 해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말씀 드린대로 동구의회는 이걸 거부하는 결의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하도로를 뚫는 거?

의원 : 예, 통상적으로 그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은 도심의 중심부를 관통하는게 아니라 도심의 외곽을 가야 되는게 현실적인데요,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동구의 중심, 중심을 전부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지하에 약 한 30m에서 38m정도가 지금 동구를 관통하고 있고, 지하 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지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MC : 아, 그래서 그걸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의원 : 예

MC :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하긴 해야 하잖아요, 이거?

의원 :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의 연약기반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강한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산업도로 50m 산업도로 부분이 있고 송현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도로 밑과 그 다음에 터널 밑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주거

지역은 절대 통과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을 관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도로 밑으로 그렇게 노선을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MC : 노선 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의원 : 어..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갖고 있고요,

MC : 아.. 국토부에서

의원 : 노선변경을 했을 경우에 한 16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지금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전체 공사가 2조가 넘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160억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하는 국토부라든가 금호건설 이쪽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C : 네. 앞서 말씀 드렸습시다만 인천의 동구가 인천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 : 예

MC : 그런데 이게 외부로 점점 더 팽창이 되나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구도심처럼 되가지고 개발계획에서 늘 소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주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동구가 옛 영화를 다시 찾으려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 예

MC : 여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의원 : 우선은 지금 동인천북광장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올 3월에 완공을 예정이 되었구요

MC : 아, 북광장이요

의원 : 예 동인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인천 북광장에 앵커시설을 반드시 유치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MC : 어떤 것을 말씀 하십니까?

의원 : 지금 인천의 인천같은 경우는 프레스센터가 우리 동인천 북광장에

MC : 프레스 센터가 없잖아요, 지금.

의원 : 예, 예 프레스센터를 우리 동인천 북광장 쪽에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수, 만석부두 그 부분이 지금 어항구로 지정이 된 상황인데요. 어항구 지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만석포구 이 부분 또한 어항구 지정을 해야 되구요, 이것을 넘어서 일명 십자수로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양문화관광광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양 친수 공간이 조성된다고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 어쨌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겠죠.

의원 : 예 그렇습니다.

MC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 예 고맙습니다.

MC : 인천의정중계답이었습니다. 인천시의회 허인환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허인환 의원은 동구 제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